

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7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7월 20일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공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『전국자치복권』을 2001년도에도 전국 공동으로 발행하여 오던 중 즉석식복권의 판매가 신장되어 추가 발행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가. 발행주체 :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

나. 판매지역 : 전국

다. 발행규모 : 900억원

○ 당초 : 600억원(즉석식 200, 추첨식 400)

○ 추가 : 300억원(즉석식복권)

라. 1등 당첨금액 : 즉석식 5천만원, 추첨식 10억원

마. 액면금액 : 즉석식(매당 5백원), 추첨식(2,000원/4매 1세트)

5. 검토의견

2001년도 전국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

자치복권은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각 시도가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적립액 1천억원을 목표로 1995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,

2001년도에는 90억 6,4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즉석식 복권 200억원(500원권, 4천만매, 5회)과

추첨식 복권 400억원(2,000원권, 2천만매, 1회)등 총 600억 원의 복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,

즉석식 복권의 판매신장으로 2001. 6월말 현재 155억원을 발행 판매액은 110억원으로,

금년도 당초 예상판매액 160억원과 수익금 조성액 22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,

신규복권의 시장진입, 최고 당첨금 및 액면금액 인상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즉석식 복권 300억원을 추가 발행하려는 것으로,

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·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,

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자치복권을 추가 발행하려는 것은 자치단체가 앞장서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,

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